

문화재와 함께한 일주일

송가온

“엄마, 나는 바다로 가고 싶어요. 경주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여름 방학을 맞아 경주에 계신 할머니 댁에서 일주일을 보내기로 했다. 나는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실컷 놀고 싶었는데 엄마는 이번 방학에는 경주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보자고 하셨다. 아무리 투덜거리어도 소용이 없었다. 경주가 신라의 수도였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일주일이나 머물기에는 볼거리와 놀거리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나는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 금방 알 수 있었다.

경주는 문화유산이 아주 많이 남아 있어서 커다란 박물관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어디를 가든 역사가 한가득 배어 있었다.

경주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눈에 띈 것은 기와집과 커다란 왕릉이었다. 박물관도 기와집, 화장실도 기와집 그리고 동네의 작은 카페도 기와집으로 되어 있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옛 서라벌로 돌아간 것 같았다.

엄마와 나는 가장 먼저 어디를 갈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세계 문화유산으로 뽑힌 불국사와 석굴암을 빼놓을 수는 없었다. 나는 인터넷으로 불국사를 찾아서 종이에 나만의 지도를 만들었다. 석굴암과 다보탑의 위치도 그리고 가장 중심에 있는 대웅전, 자하문 그리고 올라가는 계단도 그려 보았다. 나는 불국사에 도착하자마자 주머니에서 지도를 꺼내 손에 들고 다녔다. 내가 그린 지도와 비교해 보며 구경하는 것도 무척 재미가 있었다.

불국사는 토함산에 있는 아주 큰 절이다. 불국사 입구 양쪽으로는 초록 숲이 우거져 있어서 무더운 여름인데도 시원한 느낌이 들었다.

천왕문에 들어서자 눈이 부리부리한 사천왕들이 무서운 인상을 쓰며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천왕들이 ‘마음이 나쁜 사람은 절대 들어올 수 없다’는 듯이 불국사를 지키는 것처럼 보였다. 덜덜 떨면서 천왕문을 지나니 넓은 불국사 마당이 나왔다. 인터넷에서 많이 본 낮익은 풍경이었다. 내가 종이에 그리며 생각했던 모습보다 실제로 보니 훨씬 더 아름다웠다.

“눈으로만 보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도 보거라.”

엄마는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시며 다보탑과 석가탑에 얽힌 아사달과 아사녀의 이야기를 해 주셨다. 훌륭한 탑을 만들기 위해 애쓴 아사달과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다 죽은 아사녀의 이야기가 무척 안타까웠다.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다보탑과 석가탑을 보니 아사달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불국사를 다 둘러보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석굴암에 가기로 했다.

석굴암은 불국사에서 차를 타고 꼬불꼬불 올라가야 한다. 주차장

에 차를 세워 두고 숲길을 10분 정도 걸어가면 석굴암 입구가 보인다. 부드러운 흙길을 걸으니 흙냄새가 솔솔 풍기는 것 같았다.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이 땀방울을 식혀 주었다. 사실 나는 큰 기대를 하고 석굴암으로 갔는데 불상이 유리벽 안에 있어서 왠지 그림의 떡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유리벽 안에서 부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유리벽 안에 계셔서 답답하지는 않을까? 그래도 편안한 얼굴로 미소를 짓고 있는 부처님은 답답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발전을 기원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다.

할머니 댁은 침성대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할머니는 침성대를 보며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신다. 나도 할머니를 따라 침성대 산책을 하였다. 갖가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퍼레이드를 펼쳐서 더욱 흥미진진했다. 여왕 옷을 입은 사람은 가마를 타고 있었고, 병사 옷을 입은 사람은 기다란 창을 들고 여왕을 지키려는 듯 뒤따라가고 있었다. 마치 신라 시대 여왕님의 행차 같아서 나도 한참을 따라다녔다.

침성대 앞은 공원처럼 초록 잔디가 넓게 펼쳐져서 눈이 시원하게 느껴졌다. 주위에는 커다란 왕릉도 많았다. 마치 작은 산들이 동글동글 모여 있는 것 같았다. 침성대는 돌을 잘라서 쌓아 올렸다고 한다. 아랫부분은 사각형인데 위로 올라가는 부분은 물병처럼 둥글었다. 위에는 사각형의 창문이 하나 뚫려 있어서 그곳으로 사람들이 드나들었다고 한다. 침성대는 별을 관측하는 천문대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침성대가 정말 천문대로 쓰였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천문대가 아니라면 무엇을 하기 위해 지어졌는지 궁금했다. 첨성대의 비밀이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다.

첨성대에서 왼쪽으로 가면 안압지, 오른쪽으로 가면 계림이 나온다. 나는 경주에서 안압지가 제일 마음에 들었다. 안압지를 산책한 왕과 왕비의 흉내를 내며 나도 느긋하게 엄마와 산책을 했다.

경주에 있으면서 박물관에 두 번이나 갔다. 크지는 않지만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었다.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본 왕관은 반짝반짝 화려하고 아름다웠다. 박물관에 있는 많은 문화재를 기억하며 엄마와 나는 경주에서의 일주일을 마무리했다. 지금도 경주에서 보낸 일주일을 생각하면 박물관에서 본 웃는 기와처럼 슬그머니 미소가 지어진다.